



해변위 '열전'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롱 비치에서 열린 'FIVB(국제배구연맹) 롱비치 그랜드 슬램 비치발리볼 대회'에서 이탈리아와 러시아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KIA 마운드, 가을야구 희망 쏜다

### 홀튼 방출 ML 출신 좌완 토마스 영입...슬라이더·체인지업 강점 임준섭·송은범 등 상승세에 선발 로테이션 고민 해결...반전 '기대'

KIA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은 '마운드'다. 후반기 출발은 거창했다. KIA는 4위를 눈앞에 두고 시작한 후반기 첫 경기에서 5-3 승리를 거두며 역시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하위권에 처진 LG·한화를 상대로 연패를 당하면서 KIA의 4위 꿈이 희미해졌다. 무엇보다 잡을 수 있었던 경기들을 번번이 놓쳤다는 점에서 후반기 첫 주의 성적은 더 뼈아프다. '마운드'가 발목을 잡았다. 불펜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면서 후반기 스타트는 잘 끊었지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경기에서 마운드 대란이 발생했다. 홀튼의 마지막 테스트 무대였던 23일, 홀튼이 LG 최경철에게 만루포를 맞으면서 4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강판됐다. 김진우를 투입했지만 2개의 홈런을 얻어 맞는 등 KIA가 4회에만 9실점을 하며 휘청거렸다. 타선이 4개의 홈런포를 터트리

주는 등 분전했지만 9실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경기는 결국 8-11 패로 끝났다. 허무하게 마운드 싸움에서 밀리자 타선이 침체됐다. 24일 11개의 잔루를 남기면서 2-6으로 패했고, 25·26일에는 김병현과 송은범이 잘 던지고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한화전 패전투수가 됐다. 마운드의 세밀한 운영이 아쉬웠던 패배. 4위 목표는 희미해졌지만 혼란의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쉽게 남은 경기를 포기할 수 없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선동열 감독에게도 '마운드 다지기'는 남은 숙제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토마스가 마운드의 큰 변수다. 홀튼과 작별을 고한 KIA는 지난 25일 좌완 저스틴 토마스(30·Justin Thomas)와 계약금 없이 연봉 16만불에 계약을 맺었다. 192cm·100kg의 토마스는 메이저리그 3시즌



토마스

(31경기·2패·평균자책점 6.84), 마이너리그 10시즌(54승 50패 4.36), 일본 니혼햄에서 1시즌(2패·8.71)을 활동한 좌완 정통파다. 올 시즌에는 LA 에인절스 산하 솔트레이크(트리플 A)에서 20경기에 출장해 4승 8패, 평균자책점 5.99를 남겼다. 140km 후반대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 투심, 체인지업 등을 구사한다. 임준섭·김병현이 발전을 거듭하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송은범의 공에도 힘이 붙었다. 에이스 양현종이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토마스가 선발전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KIA의 로테이션 고민도 풀 수 있다. 선발이 안정되면 자연히 중간계투의 과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새 카드에 새 판을 짜게 된 KIA 마운드. 내년 시즌의 큰 밑그림이자 팬들의 마음을 달래줄 마운드 재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아시안게임 야구 엔트리 오늘 확정

### 37명중 23명 최종 선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가 28일 오후 2시 서울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인선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를 열고 최종 엔트리 24명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팀 사령탑 류중일 삼삼 감독과 김인식 기술위원장, 김병일·김재박·이순철·차명석 기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한 2차 예비 엔트리 37명을 발표했다. 이 중 23명이 대표팀에 최종 승선하고 KBA가 추천한 아마 야구 선수 한 명이 엔트리 한 자리를 채운다. 류중일 감독은 "18~19명은 이견 없이 대표팀에 선발될 것"이라며 "나머지 4~5자리는 기술위원회와 긴 논의를 거쳐야 확정할 수 있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KIA 브렛 필, 득너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브렛 필(30)이 '달바보' 대열에 합류했다. 필의 부인 킴(30)씨가 27일 오전 7시 광주 한 산부인과에서 몸무게 3.57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필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킴리(Kinley)로 지었다. 필의 얼굴에도 마침내 웃음꽃이 폈다. 출산 예정일을 넘겨서 얻은, 타국에서 낳은 첫 딸이라 가슴 졸였던 '예비 아빠'였다. 무사히 딸을 얻은 필은 바로 선수단에 재합류해 27일 경기 스타팅 멤버로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



2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14 안산·우리카드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결승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에서 대한항공 전진용(오른쪽에서 2번째)이 서브 득점을 올린 후 동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항공, 3년만의 정상

### 프로배구 컵대회 결승 우리카드에 3-0 승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컵대회에서 3년 만에 정상에 올라 다음 시즌 기대를 부풀렸다. 대한항공은 2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14 안산·우리카드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주포 신영수의 맹타를 앞세워 우리카드를 3-0(25-22 25-19 25-22)으로 완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대한항공이 컵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4회 우승)에 이어 남자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컵대회 우승컵을 수집해 또 하나의 '여름 코트 감자'로 자리매김했다. 주포 신영수가 25득점을 터뜨리는 괴력을 발휘하며 공·수의 중심 역할을 했다. 신영수는 블로킹도 5개를 잡아내 약점으로 꼽히던 팀의 높이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창단 첫 우승을 노렸던 우리카드는 최홍석(15득점), 김정환(15득점) 쌍포가 맹활약했으나 신영수의 화력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1세트부터 신영수가 블로킹 2개를 포함해 10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한 덕에 대한항공은 첫 세트를 잡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2세트에도 신영수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6점을 올렸다. 여기에 최부식, 광석석, 정지석의 몸을 날리는 수비를 선보이며 대한항공은 가볍게 2세트까지 잡았다. 대한항공은 여세를 몰아 3세트 11-10에서 상대 범실과 강민웅·김형우의 연속 블로킹, 신영수의 서브에이스, 광석석의 백어택 등을 이어붙여 16-12로 달아나 우승을 예감했다. 앞서 열린 여자부 결승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주

포 황연주의 맹활약을 앞세워 GS칼텍스를 3-1(25-20 22-25 29-27 25-23)로 꺾고 8년 만에 우승해 '명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대캐피탈이 컵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6년 첫 대회 챔피언에 오른 이후 8년 만이다. 2009년과 지난해 컵대회에서 준우승한 현대캐피탈은 아쉬움을 떨친 것은 물론이고,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아픔까지 씻어 새 시즌 기대를 부풀렸다. 화려하게 부활한 주포 황연주는 이날 29득점을 올려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2010-2011 시즌 정규리그, 올스타전, 챔피언 MVP를 휩쓴 황연주는 이날 컵대회 '최고 선수'에 등극해 정대영(도로공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MVP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 이보미, JLPGA 시즌 두번째 우승

이보미(26)가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JLPGA) 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27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즈오호토 컨트리클럽(파72·6531야드)에서 열린 센추리21 레이다스 골프토너먼트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였다. 선두에 1타 뒤진 2위에서 3라운드를 시작한 이보미는 함께 11언더파 205타를 적어내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1080만엔(약 1억882만원)이다. /연합뉴스

이로써 한국 선수들은 올해 JLPGA 투어에서 8승을 합작했다. 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이보미는 전반에 만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우승에 시동을 걸었다. 후반에는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선두권 선수들이 무너져 가볍게 역전 우승을 수확했다. 시즌 4승에 도전한 안선주(26)는 이보미에 2타 뒤진 공동 2위(9언더파 207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